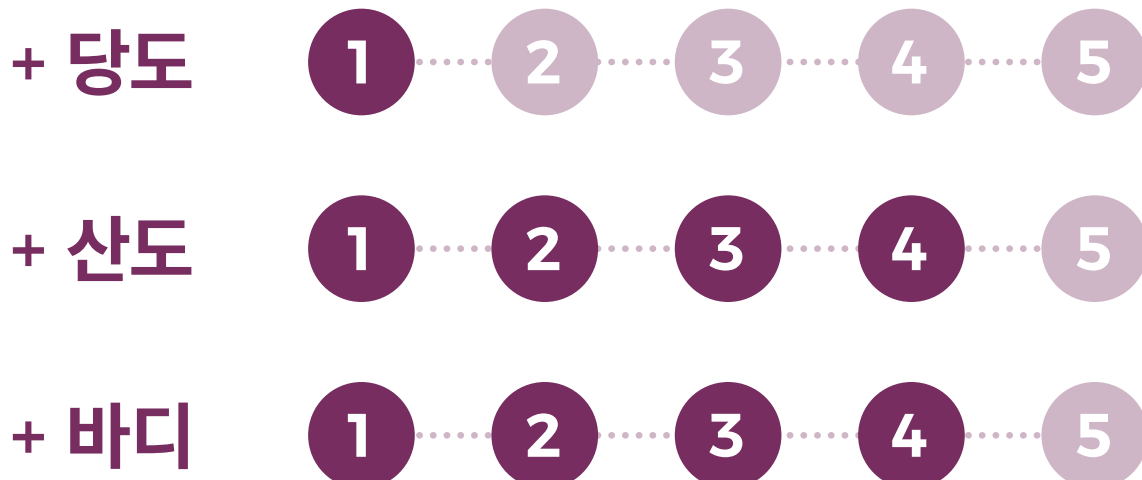




Two Hands Clare Valley Single
Vineyard shiraz Art Label

투핸즈 클레어 밸리 싱글빈야드 쉬라즈 아트레이블

윤명로 화백의 작품 '바람부는 날'을
레이블에 담은 와인



Type	레드 와인
Country / Winery	호주 > 클레어 밸리 / 투핸즈
Grape Variety	쉬라즈 100%
Capacity	750ml
Food Matching	붉은 육류요리, 치즈, 야생 가금류 요리

Information

검붉은 빛의 보라색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움 풀바디의 질감과 강렬한 맛이 인상적인 와인이다. 붉은색 커런트, 신선한 베리류들의 생생한 산미가 떠오르는 맛을 가지고 있고 잘 짜인 탄닌감이 길고 인상적인 여운을 남긴다. 작은 싱글 블록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양조하고 젖산 발효 후 18개월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한 뒤 여과와 정제를 거치지 않고 병입해 출시한다.

Tip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투핸즈는 호주를 대표하는 부티크 와인 생산자가 됐다.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투핸즈 와이너리를 두고 “남반구 최고의 와인메이커”라는 극찬을 했으며, 매해 세계 유수의 와인 언론들이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특히 싱글 빈야드 시리즈는 마이클이 직접 매년 2천여 개의 배럴을 일일이 테이스팅해본 후 A등급을 매긴 것들을 추려낸 후 그 중에서도 우수한 포도밭의 것을 따로 골라 완성하는 와인이다.

윤명로 화백은 “좋은 와인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아방가르드와 앵포르멜 예술 역시 특별한 규칙도, 이렇다 할 정의도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창작자의 양적인 사유와 그 안에 깃든 혼을 감히 짐작할 뿐이다.

“나는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듯 나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무척 고통스러움에 빠져들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과 더불어 그림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 윤명로 -